

봄꽃과 음악의 만남...장성 황룡강 길동무 꽃길축제

9일 전야제 이찬원·윤수현 등 트로트 가수 대거 출연 신명 무대
10·11일 이틀간 스램프 투어·난타 한마당 등 다채로운 즐길거리

봄꽃으로 물드는 장성 황룡강에서 설렘 가득한 음악 축제가 열린다.
장성군은 10일부터 11일까지 이틀간 '제24회 장성 황룡강 길동무 꽃길축제'를 황룡강변 일원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 축제는 지난해 '뮤직페스티벌'로 변신에 성공한 성과를 바탕으로 한층 풍성한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다.
9일 오후 6시 황룡정원 주무대에서 열리는 전야제에선 이찬원, 윤수현 등 트로트 가수들이 대거 출연한다.
축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10일에는 '장성뮤직페스티벌'의 막이 오른다. 독보적인 락 보컬 하현우를 필두로 한 실력과 밴드 국카스텐과 소울(soul) 바탕의 감각적인 음악을 선사하는 카더가든, 유다반밴드, 벵키, 연정, 리제, 이종민 등 7명의 뮤지션들이 '봄날 감성'을 충전한다.

지난해 호응을 얻었던 '상생감사석'은 100석을 늘려 총 300석을 마련할 계획이다. 200석은 5월 중 장성에서 5만원 이상 소비한 사람들을 위한 자리다. 현장 접수처에 영수증을 제출하면 1인당 입장권 1장을 받을 수 있다. 나머지 100석은 장성군에 10만원 이상 고향사랑기부를 실천한 사람들의 몫이다. 2024년 1월 이후 기부자 50석, 현장기부자 50석으로 나눠 기부 참여를 독려한다.
이 외에도 지역 예술인들이 참여하는 '우리동네 열린음악회', '신나는 난타 한마당', '봄꽃예술 한마당' 등의 소규모 공연도 준비되며 수국터널, 미니 어저, 시화전 등의 볼거리도 갖춘다.
즐길거리도 풍성하게 준비했다. 직업 체험 4종(도슨트·작가·플로리스트·조향사)과 불나들이 체험(페이스 페인팅·묵공), 스램프 투어, 미니 오락실, 팻 놀이터, 스마트폰 사진 무료인화 등이 진행된다.

하기를 달래줄 향토식당, 간단먹거리, 푸드트럭과 농특산물 판매부스는 그라운드골프장 인근에서 찾을 수 있다. 유모차·휠체어 대여소, 컨테이너형 수유실 등도 운영해 방문객들의 만족도를 높일 계획이다.
꽃길축제와 함께 열리는 '제5회 전라남도 정원페스티벌'도 주목을 끈다. 황룡정원 맞은편 힐링허브 정원 인근에서 열리는 정원페스티벌은 9일 오후 개막식을 시작으로 18일까지 이어진다.
올해는 '남도정원, 남도인의 삶이 담긴 정원'이라는 주제로 ▲대표정원 1곳(황지해 작가) ▲작가 정원 4곳(김명윤·박정아·박종완·서자유 작가) ▲참여정원 20곳이 조성된다. 팔찌 만들기, 꽃 그리기, 꽃부채 그리기, 미니정원 만들기, 다육이 심기 등 정원을 주제로 한 체험행사도 마련된다.
김한중 장성군수는 "축제 기간을 단축하고 개최 장소도 황룡정원 인근으로 한정하는 등 선택과 집중을 통해 페스티벌의 밀도를 높이고자 했다"면서 "아름다운 음악과 봄꽃 향기 가득한 장성 황룡강으로 여러분을 초대한다"라고 말했다.

/장성=김홍호 기자 yongho@kwangju.co.kr



'제24회 장성 황룡강 길동무 꽃길축제'가 10일부터 황룡강변 일원에서 열린다. 지난해 열린 장성 황룡강 길동무 꽃길축제. <장성군 제공>

K-가든 세계화...담양 국립정원문화원 본격 가동

한국수목정원관리원 시범운영
정원인력 양성·치유 프로그램

K-가든 세계화에 앞장설 국립정원문화원이 본격 활동에 돌입했다.
산립정 산하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이하 한수정)은 국립정원문화원이 제2차 정원진흥기본계획에 따라 정원 전문인력 양성과 한국 정원문화 선도를 위해 1일부터 시범운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담양군에 위치한 국립정원문화원은 7ha 면적에 생활정원, 문화정원, K-가든, 소재정원 등 4개 야외정원과 주제정원 15개로 조성됐다.
이곳에는 연수동, 갤러리온실, 한옥쉼터, 실습재배온실, 방문자센터 등 각종 기획전시 및 교육시설도 갖췄다.
국립정원문화원에서는 정원 분야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 정원관광 및 정원 치유프로그램 운영, K-가든 모델발굴 및 조성·보급, 모델정원 전시 및 정원문화 체험 등 정원문화 확산과 K-가든 세계화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국립정원문화원은 이달부터 정원관리인, 일반인,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공공정원, 전문주책 정원, 정원해설가 양성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한동길 국립정원문화원장은 "담양군에는 소재원, 명옥헌원림, 죽녹원 등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정원자원이 풍부하다"라며 "전남도와 군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국민이 일상에서 정원을 향유하고, 정원이 치유와 배움의 장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담양에 들어선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국립정원문화원 전경.

로그그램을 운영한다.
한동길 국립정원문화원장은 "담양군에는 소재원, 명옥헌원림, 죽녹원 등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정원자원이 풍부하다"라며 "전남도와 군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국민이 일상에서 정원을 향유하고, 정원이 치유와 배움의 장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담양=한동훈 기자 hdh@kwangju.co.kr

함평나비축제 22만4000명 다녀갔다

6일까지 12일간의 일정 마무리
입장료 수입 8억4900만원 기록

대한민국 대표 생태축제인 제27회 함평나비대축제가 지난 6일까지 12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함평군에 따르면 '나비, 황금박쥐를 만나다'라는 주제로 개최한 올해 나비축제는 지난해 대비 20% 증가한 22만4098명의 관광객이 다녀가며 입장료 수입 8억4900만원을 기록했다.
지역 주민이 참여한 농특산물 판매장은 2억9800만원의 매출을 올렸고, 편의점·체험 부스 등 입점 업체는 매출 7억8000만원을 기록해 지역경제와 관광산업에도 활기를 불어넣었다.
올해 나비축제는 호랑나비, 배추흰나비 등 17종 20만 마리의 나비와 메리골드, 루피너스, 꽃양귀비 등 30종 50만 본의 다채로운 꽃이 축제장을 장식했다.
또 다양한 문화공연과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어린이와 가족 단위 관광객에게 풍성한 볼거리를 선사한 것이 성공 요인으로 꼽힌다.

특히 중앙광장 야외 나비생태관에서 올해 새롭게 선보인 '나비 먹이주기 체험'은 살아 있는 나비와 교감할 수 있는 특별한 체험 기회를 선물해 가장 많은 인기를 끌었다.
세계적 멸종위기종인 황금박쥐가 서식하는 함평의 청정 자연을 알리기 위해 올해 처음 선보인 캐릭터 '황박이'는 ▲황박이 & 뽀빠 팝업스토어 ▲황박이 포토존 ▲황박이 모자 ▲황박이 인형탈 등으로 재탄생하며 값값 상승으로 화제를 모으고 있는 황금박쥐 조형물과 함께 관광객의 이목을 끌었다.
함평군은 8일까지 이틀간 임시로 함평엑스포공원 출입을 통제해 축제장을 정비한 뒤 9일 재개방한다.
이상의 함평군수는 "황박이라는 상징 캐릭터를 통해 누구나 공감하고 참여할 수 있는 축제로 만들었다"라며 "내년에는 더욱 풍성하고 완성도 높은 콘텐츠로 찾아뵙겠다"라고 말했다.

/함평=한수영 기자 hsy@kwangju.co.kr

화순군, 청년내일저축제와 신규 대상자 모집

일하는 청년 자립기반 조성

화순군이 청년 자립과 미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2025년 청년내일저축제' 신규 참여자를 오는 21일까지 모집한다.
청년내일저축제와 사업은 일하는 청년이 자산형성과 자립의 기반을 마련해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복지사업으로 일정 소득 요건을 갖춘 근로 청년이 3년간 매월 10만원 이상 꾸준히 저축하면 정부가 소득계층에 따라 월 10~30만원의 근로소득장려금을 추가 적립해 주는 제도다.

이를 통해 청년은 만기 시 최대 1440만원의 복돈을 마련할 수 있다.
신청 자격은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가구(기초생활수급자 및 기타 차상위 계층) 청년은 만 15세 이상~39세 이하로 월 10만원 이상 근로·사업 소득이 발생해야 한다.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청년은 만 19세 이상~34세 이하로 월 50만원 초과~230만원 이하 근로·사업 소득이 발생해야 하며 자격요건 및 소득 기준 조사 후 세부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한다.
정부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자금사용계획서를

작성해야 하며 3년간 꾸준한 근로 활동과 본인 적립금 납입, 자립역량교육 10시간 이수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 문의는 화순군청 사회복지과 생활보장팀 또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로 문의 후 신청 가능하며 온라인 복지포에서도 신청할 수 있고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오는 8월 최종 대상자를 선정한다.
자산형성포털 사이트를 통해서도 가입 정보와 일정 확인이 가능하다.
허선심 화순군 사회복지과장은 "청년내일저축제와 사업을 통해 더 많은 청년이 근로의욕을 갖게 되고 자립 기반을 마련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화순=조성수 기자 css@kwangju.co.kr

강진군, ‘빈집은행’ 거래 참여 공인중개사 모집

민간 플랫폼 연계 ‘빈집 매물화’

강진군이 농촌 빈집 거래 활성화 지원사업에 참여할 '지역협력 공인중개사'를 16일까지 모집한다.
농촌 빈집 거래 활성화 지원 사업은 매매 가능한 빈집을 대상으로 거래에 필요한 빈집 정보와 주변 현황 등을 조사해 매물화한 뒤 민간 부동산 거래 플랫폼 등을 통해 거래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농촌 빈집의 활용에 대한 군민들의 관심은 높아지고 있으나, 부동산 중개나 거래 정보 부족으로 빈집 매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강진군은 농촌 빈집은행에 참가할 '지역협력 공인중개사'를 통해 빈집 소유자가 거래에 동의한 주택을 매물화하고 민간 부동산 플랫폼 및 귀농·귀촌 누리집 '그린대로' 등에 등록하는 업무를 맡길 계획이다.

지역 특성을 잘 알고 있는 공인중개사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공고일 현재 강진군에 사업장 소재지를 두고 최근 1년 이내 해당 지역에서 거래실적이 있는 중개사를 선정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빈집 소유자의 동의를 보다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기존 우편 안내 방식 외 문자, 웹(web) 기반 등 온라인 방식을 준비 중이며, 시스템이 마련되는 대로 빈집 소유자에게 농촌 빈집은행에 대해 안내할 계획이다.
거래 동의 절차는 시스템 준비 상황 등을 고려해 추진되며, 선정된 지역협력 공인중개사를 통해 빈집 매물화 작업을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강진군 관계자는 "농촌지역 특성상 빈집 거래가 활발해지기 위해서 해당 지역의 사정을 잘 아는 공인중개사의 적극적인 참여와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며 "많은 지역 공인중개사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l@kwangju.co.kr



나주시 CCTV 통합관제센터.

나주시, CCTV통합관제센터 체계 개편

요원 28명 임기제 공무원 전환
책임성 강화...연중무휴 모니터링

나주시가 시민의 일상 안전을 지키는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체계를 전면 개편했다.
나주시는 통합관제센터 전제 관제요원 28명을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으로 신규 채용하고 1일자로 업무를 개시했다.
이번 임기제 공무원 전환은 민간 업체 위탁 체계의 고용 불안정, 공공성 한계를 보완하고 관제요원의 업무 연속성과 행정의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이뤄졌다.
관제요원들은 연중무휴 2200여대의 CCTV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한 각종 범죄·재난 감지, 사건 발생 시 경찰·소방 관계기관 신고 대응 등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파수꾼 역할을 한다.
아동·청소년 보호구역이나 범죄 취약지역에 설치한 CCTV의 효율적인 감시를 통해 사고 예방 및 초기 대응의 중추 역할을 담당할 예정이다.
운병태 나주시장은 "관제요원은 단순한 감시 인력이 아니라 시민의 안전을 실시간으로 지키는 책임 있는 공직자로 사명감과 책임, 의무를 갖고 시민의 안전을 지켜달라"라며 "센터요원의 이념 임기제 공무원 전환은 단순한 고용 방식 변경이 아니라 관제 업무의 공공성과 안정성을 높이는 구조적 전환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기술 고도화와 인력 역량 강화를 통해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스마트 안전도시 나주를 실현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kwangju.co.kr